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세계

글 | 백성기_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sgbaik@postech.ac.kr

황우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 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고 궁금증이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실험실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설령 이를 밝혔다 한들 그 책임 소재가 어떻고 그러한 행위가 과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고 윤리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판단하기 극히 애매할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비전문가인 검찰에게는 오죽 당황스럽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점도 일면 이해가 된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어쩌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다시는 이러한 황당한 사건으로 일반 국민을 호도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인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황우석 박사 개인 혹은 주변 인물의 부도덕성이나 비윤리적 행태에 따른 사기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과 오랜 관행에 비추어 훨씬 더 심각하게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비과학적인 주장

아직도 황우석 박사 자신을 포함해 그의 합법성을 믿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으나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자기가 직접 가 보았다고 여기저기에 여러 차례 발표하고, 아직은 가보지 못한 것으로 들뜬이 나자 사실은 이 일을 도와주는 연구원 하나가 보았다고 거짓말 하는 것을 믿고 가 보았다고 한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의 핵심은 그 다음 조금만 시간을 주면 '틀림없

이' 내가 직접 가 보이겠노라고 한 데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의 터무니없는 비과학적 주장은 급기야 추종자들이 나서 그가 '그 곳'에 가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이를 막는 어떠한 음모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시위하게 만드는 황당하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는 2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된 이 땅의 과학기술인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중요성과 심각성,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나름대로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자신이 가장 먼저 가 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이 속한 조직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쉽지는 않으나 의도한 대로 그 곳에 가서 있음직하게 생각했던 것을 실제 보기만 하면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넘어야 할 두개의 큰 난관이 있다. 첫째는 돈 문제이다. 가 보고자 하는 것이 크고 장대하면 할수록, 또한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고급 인력과 고도의 장비가 소요되기 십상이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경쟁도 치열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필연적으로 연구비를 주는 국가 기관이나 회사 혹은 개인에게 더 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제안된 노력에 필요한 연구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덜하나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더욱 더 비전문가에게 '그 세계'의 중요성과 그 곳을 가 보았을 경우 얻게 될 반사 이익을 이 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고 누가 이를 잘 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된다. 황우석 박사는 이 점에 있어 남다른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며 국내 최고가 분명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에는 못 미치기는 하나 이 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과학

자가 주변에 꽤 많이 있고, 또 국가나 기업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연구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들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제2의 황박사 양산 정부지원정책 단호한 개선을

사실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크고 작은 황우석 박사를 주변에서 늘상 보아 오며 당연시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심하다 싶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일로 보다가 이렇게도 크게 문제가 되고 나라 전체를 넘어 세계 과학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놀랍고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지축을 흔들만한 메가톤급은 아니나 엇비슷한 사건들은 항상 있어 왔고 늘 경험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험실에서 발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저런 대중적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과정에서 단순 과장을 뛰어 넘어 전혀 상관이 없거나 간혹 한결음 더 나아가 거짓 내용이 적당히 얼버무려져 대중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그러나 보고자하는 '그 세계'가 제안한 대로 가 보게 되지만 하면 이 모든 과장이나 과욕을 애교로 보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두 번째 난관이 된다. 우리가 가 보고자 하는 아직 가 보지 못한 그 자연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했거나 추론했던 세계는 십중팔구 아닐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난관이 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 본 자연의 세계는 미리 예측되고 점지된 길을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흔히 상상을 뛰어 넘어 오히려 경이롭고 신비한 발견과 우연이라고 할 사건의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불태워 '가 보지 못한 길'을 찾아 '가 보지 못한 세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기는 하지만 그 세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겉혀히 기다리는 수밖에 판 도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가 보겠다고 장담한 대로 보지 못했다 해서 나무랄 일 없고, 안보고 보았다고 꾸짖다 한들 금방 들통 날 일이었으니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황우석 박사가 아직은 가 보지 못했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문을 두드려 보고 싶다고 했다면 황우석 박사다운 투지와 모험심에 오히려 경의를 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만 시간을 주면 '그 세계'를 가 보이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종교적 신앙고백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과학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로써 황우석 박사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꼴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바로 이러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번째 난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진정한 과학자는 그곳에 가 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나 과대하게 포장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그 결과는 겉혀히, 그리고 담담히 받아 드릴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신도 바꿀 수 없다고 한 김호길 박사의 유고가 새롭게 느껴진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황우석 사건이 크고 작은 황우석 박사를 양산하고 있는 대형 기획 연구사업 위주의 정부 지원정책을 이제는 확실히, 그리고 단호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연구원, 코넬대 방문교수, 포항공대 부총장, 포항기속기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